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2 17:20 수정 2021.10.12 19:44 댓글 1



상월결사 천리순례, 13일차 순례 마무리
순례 여정 만난 지역 주민들 음료 등 보시
모두 함께 국난극복에 마음 하나로 모아



천리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가 이어졌다. 창녕 이방면 동산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따뜻한 커피와 녹차 등을 준비하고 순례단을 반기고 있다.

삼보사찰 중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하는 천리순례 13일차, 경남에 들어선 천리순례단을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2일 경북 고령 속영지를 출발해 이날 경남 창녕으로 진입했다. 순례단이 지나가는 창녕 이방면, 동산리, 현창리 주민들은 우중행선의 추위로 지친 순례단에게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보시하며 응원했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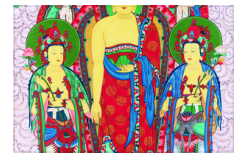
10.27법난 41주년...군항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 실천가대상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원



인기뉴스

-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교학 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 스님
-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
-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홍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순례단이 경북 고령을 출발해 낙동강을 넘어 경남 창녕으로 진입하고 있다.

순례단이 낙동강을 넘어 경남 경계인 창녕 이방면에 진입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경. 이방면 공판장에는 성익경 이방면장부터 공정표 조합장 등 면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순례 소식을 미리 듣고 비를 피할 곳을 수배해 준비한 이들이었다.



계속된 비로 순례단은 추위와 젖은 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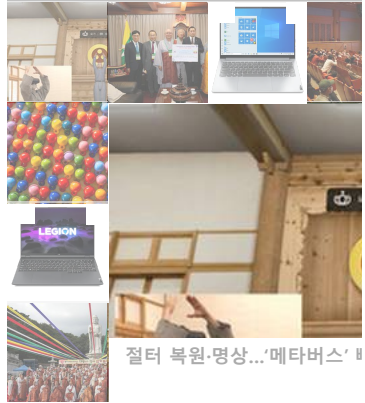
성익경 이방면장은 "실내체육관에서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실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너무 죄송스럽다"며 "어려운 시기에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난극복을 위해 순례하는 불교계의 좋은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하루 빨리 회복됐으면 한다. 부처님께 함께 기도드리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대불교NEWS] 불교중흥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절터 복원·명상... '메타버스' Ⅱ



성익경 이방면장 등이 순례단을 마중 나왔다. 이방면에서는 물 등을 순례단에 보시했다.

회주 자승 스님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일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순례단은 연이틀 내린 비로 매우 지친 상태였다. 쉬어가는 곳마다 젖은 신발을 벗고 발을 말리는 이들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회주 자승 스님도 첫 휴식지인 공판장에서부터 신발을 바꿔신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앞선 10여일보다 뚝 떨어진 기온으로 추위까지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휴식지인 이방면 공판장에서 치료를 받는 회주 자승 스님의 모습.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순례단을 향한 마을 주민들의 환대로 이겨낼 수 있었다. 순례단이 이방면을 지나 동산리와 현풍리에서 휴식할 때 회관마다 마을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와 녹차, 요구르트 등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마실 것들을 내놓고 순례단을 반겼다.

노태우 동산리 이장은 “여기 주민들은 모두 불자”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이 좋은 뜻으로 마을을 지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경계인 이방면에는 통도사 본말사의 응원 플래카드가 걸렸다.

노재균 현창리 이장도 “현창리는 통도사 해남 스님 등 스님들이 많이 나온 곳”이라며 “평소 불교언론을 자주 보며 천리순례단이 오는 걸 알고 뵈고 싶어 나왔다. 정말 좋은일을 하신다”고 말했다.

마을회관부터 창고, 정자 등 주민들이 내준 곳은 순례단이 잠시 비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데 충분한 장소였고 환대로 짧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순례단의 “감사하다”는 인사에 주민들은 “또 보입시데이”라며 정겹게 배웅했다.



천리순례단이 힘차게 순례에 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선언에서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라고 하셨다. 개인의 수행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작은 희생 하나가 나머지 모두를 뭉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전법이 아닐까. 이날 순례단은 천리순례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불보(佛寶) 사찰 통도사까지 남은 거리는 128km. 순례단의 발걸음은 가볍다.



현대해준 동산리 주민들과 노태우 이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천리순례단의 모습.



13일차 속영지에 도착하는 순례단을 반기는 불자들



이날 순례 회향에서는 부처님 전법과 같이 불교 증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계속 힘을 모을 것을 발원하는 축원문이 낭독됐다.



순례단의 젖은 신발을 말리기 위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경주캠퍼스에서 신발건조를 맡아 수거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만이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지 되새기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천리순례] 마음으로 믿고꾸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이시각추천뉴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승가회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가속”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붓물’

연등회 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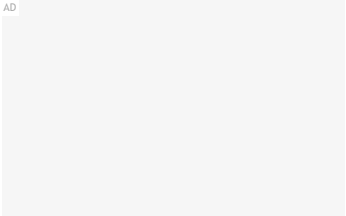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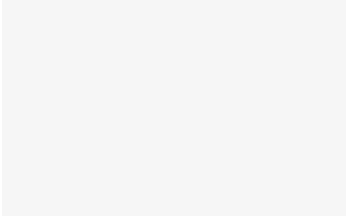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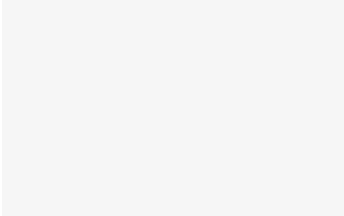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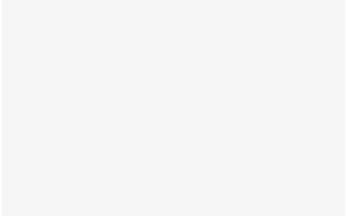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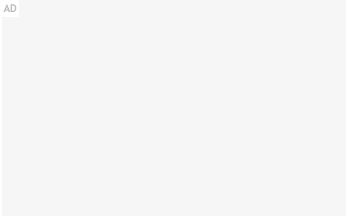
전통과 사찰음식문화 잇는 대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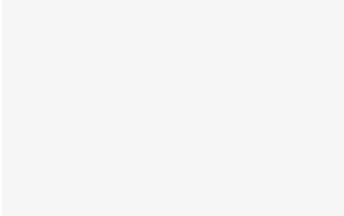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묻어두면 대박 날 주식,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



10.27법난 41주년...군홧발 짓밟힌 스님 추념법석 봉행



기사댓글 1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최신순 추천순 ●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창녕시민 2021-10-13 14:49:36

조계종 두발자유
사복착용자유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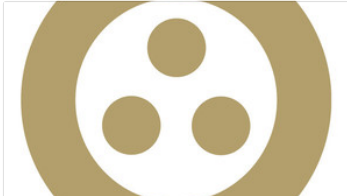
답글쓰기

2 0

주요기사



템플스테이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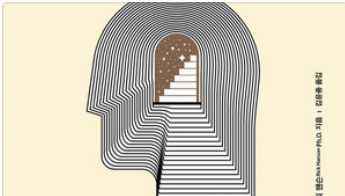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홍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UPDATED. 2021-10-27 20:11 (수)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 구독신청



- 아이디찾기
-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